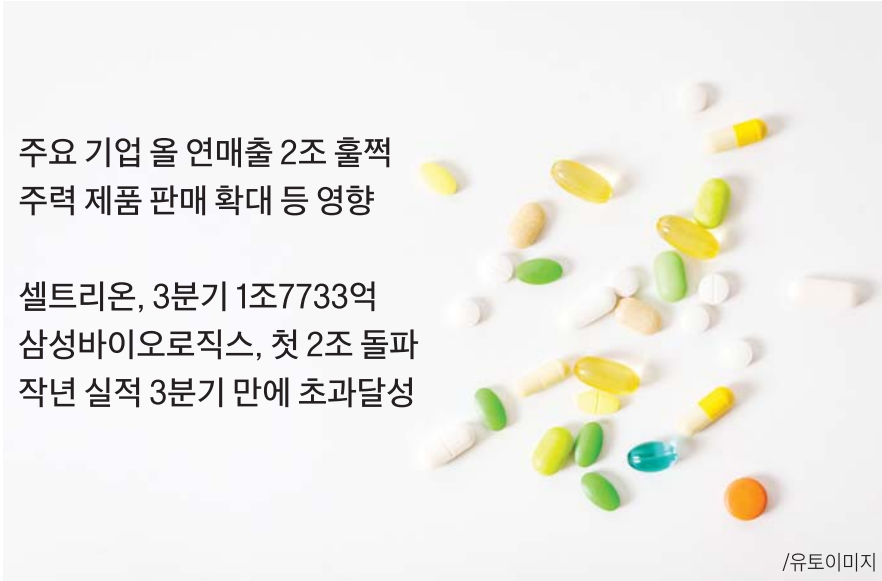
진격의 K-바이오… '사상 첫 매출 3조' 기대감 솔솔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연매출 2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첫 매출 3조원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주요 제품들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새롭게 썼다.

셀트리온은 지난 9일 경영실적 공시를 통해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37.47% 늘어난 1조773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올해 매출 2조원 달성 기대를 높였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6456억원으로 전년 대비 60.6% 급증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465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33%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역시 3분기 누적 매출 1조431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9% 성장한 규모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4964억원을 기록했다.



/유토이미지

피하주사제형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의 유럽 매출이 증가했고,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램시마 및 허쥬마 처방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실적 개선을 이끈 램시마SC는 올 3분기까지 1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 3개 분기만에 지난해 연간 매출의 170%를 달성했다.

실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램시마 및 램시마SC는 올 2분기 독일에서 51%의 점유율을 기록해 2021년 대비 20%포인트 증가했고, 같은 기간 프랑스 56%, 영국에서는 60%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처방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학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당사 제품에 대한 현지 의료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처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 지역에서 제품 판매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만에 누적 매출 2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8730억원으로, 올해 누적 매출은 연결 기준 2조358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을 3분기 만에 초과 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연간 매출 예상치는 2조6578억원이다. 내년에는 매출 3조원 시대를 열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국내 바이오 기업 가운데서는 처음 매출 2조원 시대를 열었던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올해 사상 첫 3조원 돌파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2조734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2612억원으로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회사측은 3분기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로 인해 전반적인 매출이 다소 감소했으나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키트와 스탠다드 M10 카트리지 등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제품군들에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 대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LG생건 '후', 中 광군제서 매출 '선방'

매출 4800억원 달성
틱톡 모든 부문서 1위

LG생활건강 브랜드 '후'가 올해 알리바바, 틱톡(더우인), 콰이쇼우 중심으로 진행한 광군제 행사에서 틱톡과 콰이쇼우에서 뷰티 카테고리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틱톡에서는 뷰티와 전자제품 등을 포함한 모든 카테고리에서 1위에 랭킹되는 뛰어난 결과를 이뤘다.

다만, 기존 주력 채널이었던 알리바바에서는 럭셔리 뷰티 16위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까지 알리바바로 랜딩 됐던 콰이쇼우 매출이 올해부터 자체 플랫폼인 콰이쇼우 매출로 집계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군제 매출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약 4800억원을 달성했다. 이 중 후를 비롯한 숨, 오휘, CNP, 빌리프, VDL 등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는 34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전년대비 7% 감소했다.

럭셔리 뷰티 이외에서는 피지오겔 매출이 80% 신장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더마 카테고리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광군제는 중국 정부가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유지하면서 소비 심리 침체가 이어져 판매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진행됐다.

/이세경 기자

글로벌 입지 다지는 BBQ, 마닐라 첫 상륙

1호점 '하이스트릿점' 오픈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11일 필리핀의 LCS그룹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1호 매장 '하이스트릿점'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장은 마닐라 최고급 주거 지역으로 손꼽히는 부촌 '보니파시오 글로벌시티(GBC)'에 위치했다. 그 중 평균 유동인구 5만명에 달하는 상업 중심지 하이스트리트의 복합 쇼핑센터 센트럴스퀘어몰 2층에 총 136석(111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하이스트릿점은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형태의 BBQ 카페 매장으로 운영된다. 판매하는 치킨 재료 중 현지에서 조달하는 신선육(닭고기)을 제외하고 모든 원부재료를 모두 한국에서 수출하여 조리한다. 한국의 맛과 똑같은 치킨을 조리하며 현지 입맛에 맞게 변화하는 메뉴 구성으로 시장 트렌드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필리핀 내 한국음식 문화의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치킨 외에도 떡볶이, 찜닭, 돌솥밥 등 17종의 한식도 함께 판매한다.

BBQ 관계자는 "한류 영향으로 동남아 지역에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와중에 그랜드 오픈 전 시험 운영을 통해 BBQ의 황금올리브가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너시스BBQ는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을 비롯해 57개국에 진출해 총 500개 매장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5만개 매장 오픈, 글로벌 1등 식품외식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 11일 필리핀 보니파시오 글로벌시티(GBC)에 오픈한 BBQ 하이스트릿점에서 BBQ 치킨을 즐기고 있다. /제너시스BBQ그룹

차백신연구소, 글로벌 인재에 '백신 교육'

WHO 바이오 인력 양성 프로그램
19개국 참여… 공정 노하우 공유

차바이오텍 계열사 차백신연구소가 백신 개발 공정 노하우를 세계보건기구(WHO) 바이오 인재들과 공유했다.

차백신연구소는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하는 '2022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GxP)'의 일환이다. GxP 과정은 WHO가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단독 지정함에 따라 중저소득국가 백신 생산 인재를 양성해 백신 생산 역량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교육에는 33개국에서 온 연수생 230명과 한국인 42명 등 총 272명이 참여하고 있다.

차백신연구소는 한국을 대표하는 백신 개발 기업으로 이번 견학 업체로 지정됐다. 이날 교육에는 19개국의 바이오 제조기업,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니세프, 파스퇴르연구소 등 백신 개발 유관 기관에서 근무하는 34명이 참가했다.

교육생들은 차백신연구소 부설연구소와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시설을 견학했다. 차백신연구소는 독자 개발한 면역증강 플랫폼 '엘-팜포(L-pampo)'와 이를 활용한 차세대 백신의 기초연구, 개발 및 효능 평가 등 백신 개발 공정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세경 기자

강스템바이오텍, 3분기 누적매출 135% ⬆

H&B·CDMO 사업 성장 견인

강스템바이오텍이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약 38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개별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했으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107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회사측은 H&B(헬스&뷰티)와 위택 개발생산(CDMO) 사업의 성장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H&B 사업부문은 줄기세포배양액을 기반으로 하는 화장품 및 샴푸가 출시 이후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GMP 시설을 활용한 CDMO 사업 또한 엑소좀, 윤부줄기세포,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다양한 세포치료제 영역에서 고객을 확보하며 매출액 상승에 기여했다.

다만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6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4.6% 늘어났다. 회사측은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퓨어스템-에이디주' 임상3상 진행 및 골관절염 치료제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 임상1·2a상 준비를 위한 연구비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기술특례 기업으로 상장한 강스템바이오텍은 5년간의 매출액 관련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상장유지 조건인 연간 30억원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해당 리스크를 빠르게 제거하여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CU

'간편식 패키지 공모전' 개최

CU가 오는 30일까지 간편식품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을 연다. 이번에 당선된 작품은 실제 CU의 간편식으로 발매된다.

이번 디자인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대상 상품은 햄버거와 샌드위치 카테고리의 '리얼 비프 치즈버거'와 '통밀 햄 샌드위치' 2종이다. 공모전 참가자는 둘 중 한 가지 상품을 선택해 디자인한 패키지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스펙토리' 공모전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사이트는 포켓CU와 CU 홈페이지, CU공식 인스타그램의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며, 중복 출품도 가능하다.

내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이 선정된다.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각 30만원, 장려상 각 20만원으로 총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내년 상반기에 정식 상품 패키지로 적용돼 전국 CU에서 판매된다. /김서현 기자 seoh@